

동계스포츠의 '꽃'...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개막



화려하게

2018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치러지고 있는 '2017 ISU(국제빙상경기연맹) 사대륙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개막일인 16일 오전 대한민국 민유라·알렉산더 개롤린 선수가 강원 강릉시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아이스댄스 쇼트 댄스 종목에서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아름답게

2018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치러지고 있는 '2017 ISU(국제빙상경기연맹) 사대륙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개막일인 16일 오전 오스트레일리아 마틸다 프렌드·윌리엄 바다우이 선수가 강원 강릉시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아이스댄스 쇼트 댄스 종목에서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유니폼 사태' 박주점 경기감독관 시즌 아웃

한국배구연맹이 '강민웅 유니폼 사태'로 인해 고개를 숙였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오전 9시 30분 연맹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한국전력전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 및 심판진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박주점 경기감독관을 이번 시즌 잔여경기에서 배제했고, 보조 책임자인 주동욱 심판감독관에게 5경기 출장정지에 벌금 50만원, 선수 교대 때 확인 임무를 다하지 못한 최재효 주심과 권대진 부심에게 3경기 출장정지에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신원호 사무총장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상벌위를 열게 됐다.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칙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 점수 삭감에 대해서 FTVB 유권해석을 받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당시 처분이 정당했는지 자문을 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팬들과 프로배구 관계자들은 유니폼을 챙기지 못한 강민웅의 잘못도 있지만, 규정을 어긴 선수를 경기에 뛰게 한 경기감독관이 가장 큰 잘못을 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민근 기자

"평창올림픽 참가할 것"

안현수, 7번째 금메달 도전

러시아 "우리 대표팀 위해 뛴 것"

러시아의 '쇼트트랙 영웅' 안현수(32·러시아명 빅토르 안·사진)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7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16일(한국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크라프초프 러시아 빙상연맹회장은 "빅토르 안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대표팀을 위해 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프초프 회장은 "빅토르 안은 러시아 쇼트트랙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우리 팀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그와 훈련한 모든 선수가 기량이 향상됐고 러시아 쇼트트랙은 세계 선두 그룹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안현수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국적으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후 부상으로 한 동안 슬럼프를 겪다가 재기에 성공했으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파벌 논란에 휩싸였다.

2011년 러시아로 건너간 안현수는 귀화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국적으로 500m와 1000m, 5000m 남자 계주에서 금메달 목에 걸었다. 1500m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두 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안현수는 평창에서 7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안현수는 지난해 12월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를 겸해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4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당시 안현수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민근 기자

뮌헨, 기선제압... UCL 8강 진출 가능성

아스날전 5-1 대파... 티아고 2골·로번·레반도프스키·필러 1골씩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2016~2017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성공 다가갔다.

뮌헨은 16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16강 1차전에서 아스날(잉글랜드)을 5-1로 대파했다.

1차전에서 대승을 거둔 뮌헨은 2차전에서 4골차 이상으로 패하지 않을 경우 다음 라운드에 오를 수 있다. 티아고 알칸타라가 두 골을 터뜨렸고 아르연 로번,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토마스 뮐러가 한 골씩을 보였다.

6년 연속 16강에서 미끄러진 아스날은 또 다시 탈락 위기에 몰렸다. 2차전이 안방에서 열리지만 뮌헨의 전력을 감안하면 역전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뮌헨은 전반 11분 로번의 선제골로 앞서다. 로번의 왼발이 빛났다.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특유의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친 로번은 왼발 감아차기로 아스날의 골망을 흔들었다.

아스날은 전반 30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알렉시스 산체스가 페널티킥에 실패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득점에 성공했다.

후반전은 완벽한 뮌헨의 페이스로 진행됐다. 후반 8분 레반도프스키가 필립 랍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었고 3분 뒤에는 알칸타라가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알칸타라는 후반 18분 아스날 수비수에 맞고 굴절되는 행운의 중거리 슈트로 4-1을 만들었다.

뮌헨은 끝까지 아스날을 괴롭혔다. 후반 43분 교체로 등장한 뮐러가 왼발 슈트로 쏘아 넣었다. 2차전 대반격을 꿈꿨던 아스날 입장에서는 통탄의 한 방이었다.

또 다른 16강 1차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안방에서 나폴리(이탈리아)의 추격을 3-1로 따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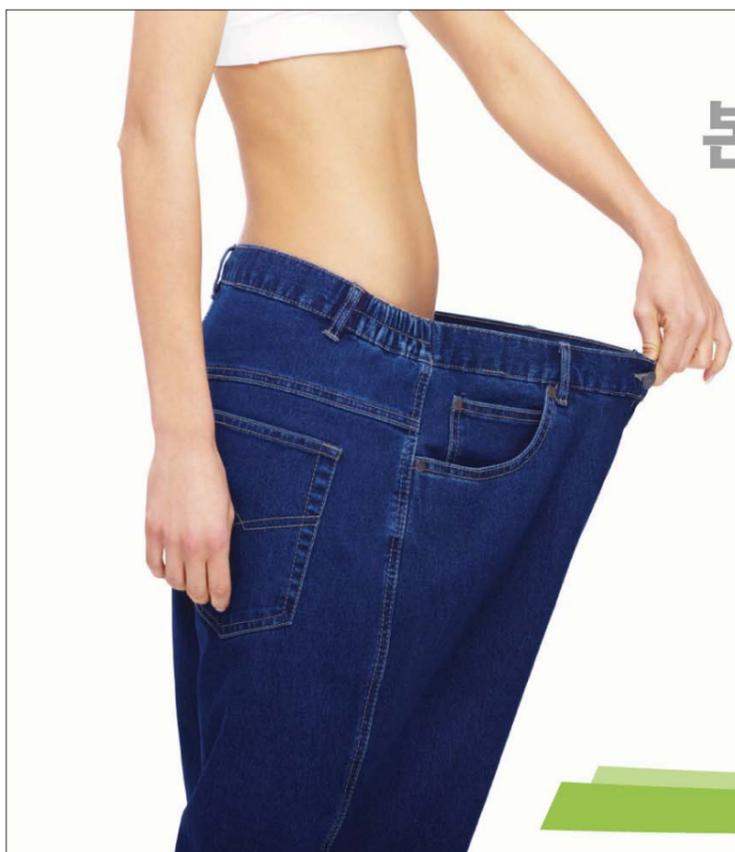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8분 선제골을 헌납했지만 카림 벤제마와 토니 크로스, 카세미루의 릴레이 골로 뒤집기를 일궈냈다.

이들 4개팀의 16강 2차전은 다음달 8일 열린다. /김민근 기자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성공 다가갔다. 사진은 16일 아스날을 5-1로 제치고 기뻐하고 있는 뮌헨 선수들의 모습.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